

KTR-대구시 '의료기기산업 육성' 손잡아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KTR과 대구시는 2009년 10월 8일 대구시청 10층 상황실에서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첨단 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성공모델 구축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KTR은 첨복단지 안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지원'을 설치하고 전문연구인력 지원을 통해 첨복단지의 R&D 중심기관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대구시는 KTR에 연구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성 KTR 원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구기관, 관련업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첨복단지는 대구시는 뛰어난 교통환경과 부지 여건으로 의료산업 부흥의 최적 입지"라며 "KTR 지원 유치를 통해 첨복단지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R은 지난 1999년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의료기기 GMP 심사기관 지정(2006년), 의료기기분야 COSD 지정(2009년) 등의 성과를 올리면서 국내 대표적인 의료기기, 의약품 관련 전문 시험평가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KTR은 국내 의료기기 심사 및 허가, 유럽 의료기기 전 품목 CE인증, 의료기기 자가품질 관리 및 생물학적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향후 KTR은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연내부터 의료기기 전품목 허가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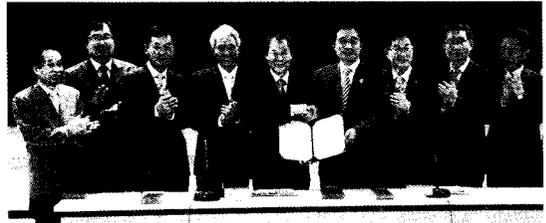
| 기술표준 2009.11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사진]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KTR-대구시 업무협약 (조기성 KTR 원장, 김범일 대구시장)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사진]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KTR-대구시 업무협약 (왼쪽에서 5번째 조기성 KTR 원장, 6번째 김범일 대구시장)

KTR, 중국 화학물질 규제에 한발앞서 대응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은 중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환경독성전문시험기관인 남경화학연구소(NIE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화될 중국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준비를 한발앞서 진행하고 있다.

KTR은 2009년 9월 21일 중국 NIES와 한-중 양국의 적합성평가 분야 산업기술기반인 '신화학물질' 산업 및 관련 연구기술 발전을 위해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0월 발효될 예정인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 (일명 China-REACH)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China-REACH를 대비한 중국 환경독성전문시험기관과의 업무협약은 국내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연구·시험인력, 학술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등 공동 협력체계를 확립, 양국의 '신화학물질' 산업발전과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NIES는 가능한 규정 범위 안에서 KTR

에 시험기간 단축, 시험결과에 대한 의견 및 해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앞서 지난 5월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법'의 입법예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은 사전신고 및 등록 없이는 신규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 화학물질의 양과 유해성, 용도에 따른 신고유형 및 제출시험자료 등 다양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주체를 중국내 법인으로 한정하고, 환경독성 관련 시험자료(생태독성데이터) 역시 중국내 시료를 통해 분석한 것만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내년 10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수출기업들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환경독성전문시험기관은 전국에 7곳밖에 되지 않아 중국내 환경독성 시

협결과를 얻기 위해서만 25주 이상 소요되는 등 중국내 신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NIES 국내 대 중국 수출기업은 KTR을 통해 신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KTR 중국지사는 '중국내 법인만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충족할 수 있는데다 언어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국내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성 KTR 원장은 "중국 신화학물질환경관리

법이 발효되면 수출기업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 한발앞서 대비하기 위해 국내최초로 중국 NIES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며 "특히 기업들은 얼마나 빨리 새제품을 시장에 내놓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MOU 체결로 신고기간이 단축되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은 중국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수입(제조)일 전에 중국국가환경보호국(SEPA)에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명을 받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KES 2009(한국전자전)에 KTR 참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전자전 2009(KES)에 참가하였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전자전은 지식경제부, 경기도청이 주최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세계 16개국 865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리에 박을 내렸다.

이번 한국전자전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국내 관련제품 전시회와 함께 첨단제품 시연회, 컴퓨터 패션쇼, 유명연예인 한국산 IT제품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사진] REACH 관련 기업 상담을 실시하는 KTR

특히 베트남, 두바이, 중남미 같은 신시장 바이어 유치를 위해 선진기업 글로벌 구매담당자를 초청한 "무역상담회"와 중국, 러시아, 인도 바이어와의 1:1 매칭 등 "Sales Fair"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KTR은 Green IT ZONE에서 열린 2009 REACH 등록 엑스포에 (주)패로스연구소,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REACH 전문 상담기관들과 참가하여, REACH 제도 소개와 최신동향, 해외 인증 및 해외규제 관련 상담, REACH SVHC(고위험성물질)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사진] KES 2009(한국전자전)에 참가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 기술표준 2009.11

KTR, 아세안 10개국 대상 기술·표준협력 강화교육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이 아세안 회원국들과 기술·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 각국 관계자들을 초청, 2009년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가자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아세안 소속 7개국의 공무원 및 기술·표준 관련 기관 관계자들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KTR의 환경유해물질 분석(RoHS) 교육과정에 참가하고 향후 한국과 아세안 기술·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20일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강화교육' 입학식에는 아세안 각국 교육생들과 함께 기술표준원 유승현 주부관, 김은정 전문위원 및 이성철 KTR 부원장을 비롯한 KTR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KTR 이성철 부원장은 입학식 인사말에서 "아세안 개도국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아세안 개도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며, "이번 교육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가국들과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사진]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강화교육' 입학식에서 이성철 KTR 부원장의 인사말



[사진]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강화교육' 입학식에서 이성철 KTR 부원장의 인사말

(주)크린랩에 석면Free 인증 수여

(주)크린랩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으로부터 석면Free 인증을 받았다.

2009년 10월 28일 KTR 조기성 원장, (주)크린랩 최종팔 부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TR 본원에서 진행된 석면Free 인증 수여식에서 조기성 원장은 (주)크린랩 최종팔 부사장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KTR은 (주)크린랩의 가정용 고무장갑(크린터치 및 파스텔 모델)에 대한 석면 적합성 시험 결과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 (주)크린랩에 석면Free 인증을 수여하게 됐다.

KTR 조기성 원장은 인증식에서 "이번 석면Free 인증을 받은 (주)크린랩이 가정용 고무장갑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국내 대표 업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크린랩은 식품 포장 랩 외에도 지퍼백, 고무장갑, 위생장갑 등 다양한 주방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생활용품 전문업체이다.

(주)크린랩은 앞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Q마크 인증(1988년) 획득, S마크 인증(1999년)을 획득한 바 있다.



[사진] 석면Free 인증서 수여(KTR 조기성 원장, (주)크린랩 최종팔 부사장)



[사진] 석면Free 인증 수여식

웅진코웨이(주)에 TR마크 인증 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은 2009년 10월 29일 웅진코웨이(주)에 TR마크(라벨링) 인증을 수여하고 인증패를 전달했다.

KTR 본원 2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TR마크(라벨링) 인증 수여식에는 KTR 조기성 원장, 박영우 인증사업본부장, 웅진코웨이(주)이선용 상무, 이수영 팀장 등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웅진코웨이(주)는 KTR의 시험 결과 물류 비데(모델명 BA11-A)의 비데살균모듈이 TR인증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여 TR마크를 인증받게 되었다. TR마크는 국민소비생활의 향상과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 안전,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품개발에 의한 품질개선사항에 대하여 KTR에서 연구원,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제품이 TR규격 인증평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TR마크(라벨링)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KTR 고유마크인 TR마크를 부착한 웅진코웨이(주)의 제품이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제품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사진] KTR 조기성 원장(우)에 TR마크(라벨링) 인증서를 수여받은 웅진코웨이(주) 이선용 상무(좌)



[사진] TR마크(라벨링) 인증 수여식 후 기념촬영